

## 存 心 篇

景行録云、坐密室 如通衢 馭寸心 如六馬 可免過。

⇒《경행록》에 이르기를, 밀실에 앉아 있더라도 마치 큰 거리를 통하듯 하고 작은 마음 다스리는 것을 마치 여섯 말이 끄는 수레를 부리듯 하면 가히 허물을 면할 수 있다.

⇒《景行録》に伝わるのに密室に座っていてもまるで大通りを通じるようにして小さな心を治めることをまるで六馬がひく車を使うようにすれば過ちを免れることができる。

擊壤詩云、富貴 如將智力求 仲尼 年少合封侯

世人 不解青天意 解青天意 空使身心半夜愁。

⇒《격양시》에 이르기를, 부귀를 지혜와 힘으로써 얻을 수 있다면 공자도 나이 어려서 마땅히 제후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 푸른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을 한밤중에 잠 이루지 못하면서 근심 걱정하게 만든다.

⇒《擊壤詩》に伝わるのに富貴を知恵と力で得ることができたら孔子も幼くて当然に諸侯になったはずだ。世の中人々はあの青い空の意味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ずに余計に身と心を真夜中に眠り成すことができないのに懸念心配するようにする。

范忠宣公 戒革子曰、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恕己則昏。爾曹 但當以責人之心 責己 恕己之心 恕人則不患不到聖賢地位也。

⇒범충선공이 자제들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비록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꾸짖는 데는 사리에 밝고 비록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사리에 어둡다. 너희들이 마땅히 사람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는 데는 사리에 밝고, 비록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사리에 어둡다. 너희들이 마땅히 사람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비록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근심할 것이 없다.

⇒范忠宣公が子供を警戒して言うのに例え愚かな人でも他人を叱るには私利に明るくてたとえ聡い人でも自分を許すには私利に暗い。君たちが当然、人を叱る心で自分自身を叱るには私利に明るくて、例え聡い人でも自分を許すには私利に暗い。君たちが当然、人を叱る心で自分自身を叱って、自分を許す心で他人を許したらたとえ聖賢の境地に至ることができないとしても心配することがない。

子曰 聰明思睿 守之以愚 功被天下 守之以讓 勇力振世 守之川去 富有四海 守之以謙。

⇒공자가 말하기를, 총명하고 생각이 깊을지라도 어리석은 체하며 이를 지키고, 공로가 세상을 뒤덮을지라도 겸양한 마음으로 이를 지키고, 용맹이 세상에 떨치더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를 지켜야 하고, 부유함이 온 세상을 차지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야 한다.

⇒孔子が言うのに聡くて考えが深くても愚かなふりをしながらこれを守って、功勞が世の中を覆い被せても謙讓な心でこれを守って、勇猛が世の中にもふるっても恐ろしい心でこれ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豊かさが世の中を占めても謙遜な心でこれを守らなければな

らない。

素書云、薄施厚望者 不報 貴而忘賤者 不久。

⇒《소서》에 이르기를, 박하게 베풀고 후한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보답이 없고, 귀하게 된 후에 비천했던 때를 잊는 사람에게는 그 귀함이 오래가지 못한다.

⇒《素書》に伝わるのに薄情に施して手厚いことを望む人には報答がなくて、珍しくなった後に卑賤だった時を忘れる人にはその貴いが長続きすることができない。

施恩 勿求報 與人 物追悔。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말라.

⇒恩恵を施したとならその報答を望まずに他人に与えたなら後悔するな。

孫思邈曰、膽欲大而心欲小 知欲圓而行欲方。

⇒손사막이 말하기를, 담력은 크게 가지되 마음가짐은 섬세해야 하고, 지혜는 둥글게 가지되 행동은 떳떳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孫思邈が言うのに度胸は大きく持つが心得は繊細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し、知恵は丸く持つが行動は正当で正し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

念念要如臨戰日 心心常似過橋時。

⇒생각은 항상 전쟁터에 나가는 날처럼 하고 마음은 항상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하라.

⇒考えはいつも戦地に出る日のようにして心はいつも橋を渡ることにしなさい。

懼法 朝朝樂 欺公 日日憂。

⇒법을 두려워하면 날마다 즐겁고 나랏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된다.

⇒法を恐れれば日々に楽しくて国事を欺けば日々に懸念になる。

朱文公曰、守口如瓶 防意如城。

⇒주자가 말하기를, 입을 지키는 것을 병(瓶)과 같이 하고 뜻을 지키기를 성과 같이 하라.

⇒朱子が言うのに口を守ることを瓶のようにして意思を守るのを城のようにしなさい。

心不負人 面無慙色。

⇒마음이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

⇒心が人を見捨てなければ顔に恥ずかしい景色がない。

人無百歲人 枉作千年計。

⇒사람은 백 살을 살지 못하는데 부질없이 천 년의 계획을 세운다.

⇒人は百歳を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余計に千年の計画を立てる。

寇萊公六悔銘云、官行私曲失時悔 富不儉用貧時悔 藝不小學過時悔 見事不學用時悔 醉後狂言醒時悔 安不將息病時悔。

⇒ 구 래 공 육회명에 이르기를, 관리가 공적인 일을 하다가 사곡(私曲:부정)을 하면 벼슬을 잃었을 때 후회하고, 부유할 때 비용을 절약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고, 기예(技藝)를 젊었을 때 배우지 않으면 때가 지났을 때 후회하게 되고, 일을 보고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할 때 후회하게 되고, 술에 취했을 때 함부로 말하면 술에서 깨었을 때 후회하게 되고, 몸이 건강할 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병들었을 때 후회하게 된다.

⇒寇萊公の六悔銘に伝わるのに官吏が公的な仕事をしている途中私曲(不正)をすれば官職を失った時後悔し、豊かな時費用を節約しなければ貧乏になった時後悔し、技芸を若い時学ばなければ時が経った時後悔するようになる。仕事をしてからも学ばなければそれが必要な時後悔するようになる。酒に酔った時むやみに言えば目が覚めた時後悔するようになる。身が元気な時休息を取らなければ病んだ時後悔するようになる。

益智書云、寧無事而加貧 莫有事而家富 寧無事而住茅屋 不有事而住金屋 寧無病而食麤飯 不有病而服良藥。

⇒ 《익지서》에 이르기를, 사고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집이 가난할지언정 걱정 있는 부잣집이 되지 말 것이며, 아무 걱정 없이 초가집에서 살지언정 걱정 많은 좋은 집에서 살지 말며, 차라리 병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들어 좋은 약을 먹지 말라.

⇒ 《益智書》に伝わるのに事故なく楽な心で家が貧しくとも心配ある金持ちにならないこと、どんな心配なしに藁葺きで暮らしても心配多い良い家で暮らさなく、かえって病氣なしに荒いご飯を食べようとも病氣になって良い薬を飲まないようにすること。

心安茅屋穩 性定菜羹香。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안온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心が楽ならば藁葺きも安穩で性品が安定すれば野菜スープも香ばしい。

景行錄云、責人者 不全交 自恕者 不改過。

⇒ 《경행록》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을 꾸짖는 사람과는 온전하게 사귄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 《景行錄》に伝わるのに他人を叱る人とは完全に付き合うことができないし、自分自身を許す人は悪いところを直すことが出来ない。

夙興夜寐 所思忠孝者 人不知 天必知之飽食煖衣 怡然自衛者 身雖安 基如子孫 何。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충효만을 생각하는 자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하늘은 반드시 알 것이며,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기꺼이 자기만을 위하는 자는 몸은 비록 편안하나 그 자손들이 과연 어찌 될 것인가?

⇒朝早く起きてから夜に眠るまで忠孝のみを思う者を人々は分からないが神は必ず分かるはずであり、腹一杯食べて暖かい服を着て喜んで自分だけのための者は身はたとえ楽だが

その子孫たちが果して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

以愛妻子之心 事親則曲盡其孝 以保富貴之心 奉君則無往不忠 以責人之心 責己則寡過 以恕己之心 恕人則全交。

⇒ 제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긴다면 그 효도는 곧 지극할 것이고, 부귀를 보전하려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디에나 충성 아닌 것이 없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사귀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自分の妻子を愛する心で親を仕えたらその親孝行はすなわち至極だろうし、富貴を保全しようとする心で賃金を奉じたらそのどこにでも忠誠でないものがない。人を叱る心で自分自身を叱ったら過ちが少ないだろうし、自分を許す心で人を許したら付き合うことが完全になるでしょう。

爾謀不臧 悔之何及 爾見不長 教之何益。利心專則背道 私意確則滅公。

⇒ 너희의 꾀함이 옳지 않으면 후회한들 어찌 거기에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소견이 뛰어나지 못하면 가르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도리에 어긋날 것이고, 자기의 사익만을 위하는 마음이 굳어지면 공익을 위하는 마음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君達のはかることが正しくなければ後悔したところでどうしてそこに及ぶことができないし、君達の所見が優れ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教えたところで何の利益があるか？ひたすら自分の利益のみのためだったらそれは道理にかなわないだろうし、自分の私益のみのために心が固まれば公益のための心は消えてしまうでしょう。

生事事生 省事事省。

⇒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덜면 일이 없어진다.

⇒ 仕事を作れば用事ができて仕事を減らせば仕事が消える。